정부, 마스크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 착수

광주전남 주말효과 코로나 감소세
전국, 신규 확진자 10만명 아래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의견 수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전남에서 모처럼 1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12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3979명, 전남 4450명 등 총 84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은 지난 3월 1일 1만명을 넘어선 이후 40여 일만에 1만명 이하로 감소했다.특히 광주는 3월 3주차에 8만 1098명까지 치솟은 뒤 4주차 7만 301명, 5주차 6만 5317명, 4월 1주차 5만 1369명으로 단계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여파로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확진자 비율이 17.5%를 차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전남은 지역별로 순천 731명, 목포 722명, 여수 604명, 나주 356명, 광양 353명 등 22개 시군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남 역시 60대 이상 확진자가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일요일 영향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에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만928명 늘어 누적 1542만 45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16만4천 481명보다 7만 3553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에 따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운영됐던 신속항원검사소가 철거되고 있다. 광주시는 신속항원 검사는 중단되지만 PCR 검사는 계속 진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손 반장은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살펴볼 사안이 많아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앞으로 신규 변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치명률이 높고, 예방접종 회피 능력과 빠른 전파력을 가진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인수위, 법안 개정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당선인 취임식에 BTS 초청 않기로

준비위 중간보고…朴초청은 "尹당선인과 회동 결과 따라 진행"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청 공연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임식 준비와 관련한 대국민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취임식에 BTS 공연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취임식을 조촐하면서 내실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무명 스타 등이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이번에는 BTS를 초청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특히나 한정적인 취임식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번엔 초청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할지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오는 12일 회동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방문하며, 이틀째인 12일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인 회동이라고 한다면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취지로 정중히 (참석을)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취임준비위에서는 정중한 예의로 초청의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3이나 5·18 유족을 취임식에 초청할지와 관련해선 "역사적 운동에 참여했던 의미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세분해서 초청 범위를 정하면 어렵다"며 "국민 초청인사로서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거나 신청하게 되면 추천 절차에 의해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준비위는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 및 일반 신청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취임식 참여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며, 각계 주요인사와 재외동포 등의 참석도 추진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러 막을 군사장비 한국에 있다…도와달라"

젤렌스키 "러시아가 멈추리란 기대 없어…군사적 지원 공개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는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으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리가 20세기에 이와 같은 파괴를 많이 봤다"며 한국이 겪은 6·25 전쟁을 상기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며 "1950년대에 전쟁을 한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은 이겨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멈출 거라는 기대는 없다. 이 상황에서는 이성이 이겨낼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의 동원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7207-9500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2년 4월 8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전원의 동의서로 자본의 총액 금600,000,000원중 금300,000,000원을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는 자기주식 보통주식 30,000주를 무상소각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것과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대상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19번길 45, 상가동 203호 (운남동, 남양아파트)
대표이사 박 종 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건자(740201-XXXXXXX)
• 최후주소 : 순천시 연향번영길 61, 4층 (연향동)
•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1196번지
피상속인 망 정건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느단145호로 신청하여 2022년 4월 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 12일
• 상속인 : 1. 김병삼(700127-XXXXXXX)
2. 김주한(941112-XXXXXXX)
울산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1길 37-12, 205호
3. 김주희(970319-XXXXXXX)
4. 김주영(011121-XXXXXXX)
상속인1,3,4 주소: 순천시 연향번영길 61, 4층 (연향동)
• 신고기간 : 2022. 4. 12. ~ 2022. 6. 22.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병삼의 주소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